

<서 평>

安自山의 『朝鮮文明史(朝鮮政治史)』

서울. 漢東書館. 1923. 327p. + 부록(朝鮮陸海軍史) 30p.

金 學 俊

(서울大 政治學科 副教授)

I. 머리말

일제 치하에서 정치학을 공부해 조선정치사에 관한 저술을 남긴 安自山과 그의 저서에 대한 정치학계의 분석은 드물다. 이 글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이 글을 통해 필자는 安自山과 그의 『조선문명사(조선정치사)』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安自山에 대한 기준 연구

1. 金容燮 교수의 평가

安自山에 대한 분석은 우선 국사학자 金容燮의 논문 「한국 근대 역사학의 성립」(월간 『지성』, 1972년 3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金교수는 개혁기의 역사학, 朴殷植의 역사학, 申采浩의 史論을 분석하고, 「그 밖의 학풍」이란 항목에서 李能和와 崔南善 및 安廓(호 自山)을 다루면서 安自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분을 읽기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이와 같이 박은식이나 신채호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학이 근대 역사학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기의 역사학이 전부 이들과 같은 입장에서만 연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의 우리 나라에는 이들과는 또 다른 계통에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一群의 학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李能和(호는 無能居士) · 崔南善(호는 六堂) · 安廓(호는 自山) 등은 그 중심인물이 되고 있었는데, 李는 한말의 어학교에서 어학을, 崔는 한학을, 安은 일본의 대학에서 정치학을 각각 공부하고 역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pp. 42-43).

이처럼 이들을 소개하면서 김용섭교수는 곧 이어 이들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들은 박은식이나 신채호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일제와의 대결 속에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체계화를 구상하고 있은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 일제의 식민지 연구기관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가지고, 또 학문적으로도 그들과의 유대 하에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능화와 최남선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修史官과 위원이었고, 안학은 그 곳 일본인 학자들과 학문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박은식이나 신채호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역사 의식이나 역사 서술은 박·신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p. 43).

이들의 연구에 대해 김용섭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의 연구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 『조선기독교及의교사』(1928), 최남선의 『不咸문화론』(1928), 『조선역사』(1928, 출판은 1931), 안학의 『개조론』(1921), 『조선문명사』(1923) 등 많은 저서로서 출판되었는데, 그 연구 태도는 사건서술적인 것에서부터 문명사학적인 것에 이르는 폭넓은 것이었으며, 그 연구의 수준은 자료 정리적인 것에서 민족 계통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었다. 이능화의 저술을 사건 서술적이고 자료 정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최남선과 안학의 그것은 문명 사학적이고 민족 계통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는 모두 일제에의 저항과 조국의 독립에 바탕을 둔 철저한 역사 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불철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업적이 오늘날에도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 연구 성과에서라기 보다는 그 자료 정리적인 의미에서인 것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그들의 연구가 철저한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p. 43).

2. 崔元植 교수의 평가

안학에 대한 두번째의 분석은 국문학자 崔元植교수가 『心像』(1981년 8월)에 발표한 「安自山의 국학 :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에서 최원식 교수는 “안학은 그가 남긴 업적에 비할 때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진 느낌이 든다. 그의 전기는 물론 생몰 연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그의 생애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최 교수는 우선 안자산의 생년을 1888년으로 추정했다. 안자산의 『조선문학사』(韓一서점, 1922)에 자신이 10세의 소아로 독립협회 토론회에서 연설했다는 기록에 미루어 그렇게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몇년에 관해서는 “일제 시대의 글로는 1942년에 발표된 「고구려의 문학」이 마지막이고 해방 이후는 글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일제 말에 죽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자산은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본 유학을 떠난 것 같다. 유학 시절 그는 1913년 전일본유학생의 통일된 조직으로 발족한 學友會의 기관지로 1914년에 창간된 『學之光』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했다. 이 글들에 대해 최 교수는 이렇게 썼다.

이 글들에는 매우 격렬한 국수주의적 경향이 발견된다. 그 자신이 유학생이면서도 그는 신라가 외국 군대를 끌어 들여 동족을 친 이후 대대로 유학생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고 맹렬히 경고한다. 그는 이 땅에 이식된 모든 외래적인 것에 대해 반대하는데 특히 유교를 「조선인의 대원수」로 규정하고 「유교 정별에 선봉」을 맡아 나서고 있다. 그러면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國粹이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다시 밀해로 이어져 오다 말해 멸망 후 지하로 스며든 東夷의 순결한 정신이다. 이러한 발상은 신채호와 유사한 바, 그것은 민족 해방의 메타포로서 당시 광범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pp. 49-50).

그는 1916년 말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다. 귀국한 뒤 그는 『조선문법』(1917)과 『조선무사영웅전』(1919)을 출간했다. 1918년에는 망명지에서 국내로 잠입한 友堂 李會榮의 고종 망명 계획에 참여한다. “이 계획은 고종의 급봉으로 실패하지만, 그가 민족주의자로 3·1운동 후 우리 나라 무정부운동의 원로가 된 우당의 동지의 하나였던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한다.

자산은 1915년 경북에서 비밀리에 조직된 조선국권회복단의 마산 지부장을 맡는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비밀 결사 안에서 안 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는가는 소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 기록으로 그의 국학이 민족 해방 운동과의 깊은 관련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51).

자산은 1921년 『我聲』의 편집인이 된다. 이 잡지는 1920년 6월 吳祥根과

張德秀 및 張道斌 등등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족한 전국의 청년 단체들을 통합해 청년 운동의 통일적 조직으로 창립한 「조선청년연합회」의 기관지였다. 여기서 그는 여러 편의 논설을 발표했다. “그 주지는 당시 민족 운동의 분열과 변질을 통탄하고 민족 운동이 무엇보다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 3호부터 자산은 이 잡지와의 관계를 끊는다. 왜 그랬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연합회의 지도부가 대일 타협적 개량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합회는 1922년쯤 내부 분열을 일으켜 드디어 1923년 완전히 좌우파로 분열되고 말았던 것이다. 안학은 반일 역량의 분열 속에서 결국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가 염원했던 것은 민족 운동의 대통 단결이었기 때문이다.”(p. 51).

『아성』을 떠난 뒤 자산은 “일체의 사회적 활동에서 물러나 국학 연구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그 글들에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의 활력이 여위고 어쩐지 맥빠진 느낌이 든다.”(p. 51). 더구나 1930년대에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나 동지의 연속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상의 검토를 끝낸 뒤 최 교수는 “안학은 민족주의자이다. 그는 신채호 같은 혁명적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최남선과 같은 대일 타협적 개량주의자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결론짓는다. 최 교수의 이러한 평가는 김용섭 교수의 그것과는 다르다. 최 교수는 “필자가 아는 한, 안학이 친일 활동을 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다만 1930년에서 1933년에 그가 총독부 기관지 『조선』에 국학 논문을 다수 발표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1930년 1월에서 5월까지 李王職 촉탁으로 일했음도 알 수 있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안학의 이름이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최 교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의적으로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의 분열에 연유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사상적 한계에 있다는 점이다. 봉건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한 대규모의 농민 전쟁인 동학란을 간단히 「邪術派의 작란」으로 규정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그의 민족주의는 민중과 튼튼히 연대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족 해방 운동의 주류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이다(p. 52).

3. 韓永愚 교수의 평가

안학에 대한, 그리고 『조선문명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며 자세한 설명은 국사학자 韓永愚 교수가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에 발표한 논문 「한국 근대 역사학과 조선 시대사 이해 : 신채호·金敎獻·안학의 조선 시대사 이해」에 나와 있다. 이 논문의 머리말에서 한 교수는 안학의 『조선문명사』의 위치를 이렇게 설정한다.

우리 나라 근대 시민적 역사학은 한말 애국계몽사상가로부터 비롯되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08년에 저술된 신채호의 『讀史新論』을 효시로 한다. 그 후 1910년대에는 대종교도에 의해서 근대 역사학은 감상적·국수적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대종교 제2대 종사 김교현의 사학이 일세를 풍미하게 된다. 그러나 1910년대 말기에 이르면, 시민적 역사학은 차츰 냉정을 되찾으면서 실증적·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원용하는 격조 높은 업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고대사 분야에서는 신채호, 현대사 분야에서는 박은식의 업적이 두드러지고, 중세·근세사 분야에서는 안학의 업적이 가장 정체를 드러낸다. 1920년을 전후하여 출간된 신채호의 『조선상고문화사』, 박은식의 『한국통사』(1915)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그리고 안학의 『조선문명사』(1920~1923)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저술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pp. 125-126).

이러한 전제 아래 한 교수는 안학의 생애와 『조선문명사』를 상세히 다룬다. 여기서 한 교수는 안학은 “본적이 경남 창원으로 1888년(고종 25년)생이다”라고 못박았다. 또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와 연계를 가지면서 저술 활동에 종사한 관계로 독립운동가로부터는 적막한 시선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의 기본 입장은 민족주의를 견지하였고, 또 그 자신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존경을 버리지 않았다.”(p. 143)고 썼다.

한 교수는 “안학의 국학에서 가장 특출한 공적은 고려·조선시대사를 발전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이다.”(p. 143)라고 지적하고, 『조선문학사』(1921, 1922增訂)와 『조선문명사』를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했다. 이어 『조선문명사』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다.

사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국학 연구 중에서 가장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조선문명사』(조선정치사)이다. 이 책은 자료섭렵 면에서도 단연 뛰어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정치사라는 점에서도 획기

적 의미를 갖는다(p. 144).

결론적으로 한 교수는 『조선문명사』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신채호나 선배 대종교사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면서도, 이를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한국사의 발전 체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 이는 안학이었다. 그는 최초로 근대정치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사회과학도로서, 1910년대에 중국과 일본에서 유행하던 문화사관 입장에서의 중국사 연구에 자극을 받아, 한국 정치사를 최초로 체계화하였다. 1920~1923년에 집필된 『조선문명사』(일명 조선정치사)가 그것이다. 이 책은 방대한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실증적 연구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며, 세계 각국의 정치사를 종횡으로 비교하면서 한국 정치사를 비교사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획기적 의미를 갖지만, 그보다도 조선 시대 정치사를 최초로 발전사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는 선배 민족주의 사가들이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제식민주의 사가들에 의해서 왜곡된 한국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선배 민족주의 사가들이 주로 식민주의 사가들에 의해서 왜곡된 한국사상 중 고대사 부분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였다면, 안학은 조선 시대사 부분을 바로 잡는데 선구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p. 163).

III. 『조선문명사』의 구성과 내용

1. 조선문명사의 구상

자산의 국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매우 넓고 깊었다. 따라서 그는 全8冊의 『조선문명사』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즉 (1) 조선민족사考, (2) 조선미술사개론, (3) 조선학예사, (4) 조선문학사, (5) 조선정치사, (6) 조선경제사, (7) 조선외교사, (8) 조선육해군사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조선문학사』와 『조선정치사』가 각각 단행본으로 출간됐고, 『조선육해군사』는 『조선정치사』의 부록으로 실렸다.

2. 집필 시기와 참고 자료

이 책은 1920년 여름에 집필이 시작되어 1922년 1월 탈고됐고, 이 해 12월 서울의 澱東書館에서 인쇄되어 1923년에 발행됐다.

자산의 「述例」에 따르면, 이 책의 집필에 참고된 자료는 모두 8천 5백여

책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이 책들을 서원 및 古家의 장서와 일본 上野도서관, 중국 北京관립장서각 및 上海천주교書樓 등등에서 읽었다.

한국측 자료로서는 『大典會通』, 『百憲總要』, 『銀始條例』, 『東略』, 그리고 여러 史書와 문집을 참고했다. 중국측 자료로서는 9通을 비롯하여 각종 법전과 『古今治平略』, 『淵鑑類書』 등등을 참고했다. 이밖에 서양측 자료로는 독일법제사, 로마법제사, 그밖의 각종 정치사와 정치학 등을 참고했다.

이들 밖에도 전직 大官, 서리, 아전 등등에게 행정의 실제 경험을 문의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특히 조선 시대의 행정 체제와 관련하여 문헌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한영우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 책은 “이와 같이 풍부한 문헌적·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실증적·학술적 가치를 높이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서를 일체 본문 속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p. 145).

3. 이 책의 구성 : 시대구분론과 관련하여

이 책은 6장 1백 40절로 되어 있다. 제 1장은 「緒言」, 제 2장은 「太古 부락시대」, 제 3장은 「上古 小分立 정치시대」, 제 4장은 「中古 大分立 정치시대」, 제 5장은 「近古 귀족정치시대」, 제 6장은 「近世 군주독재정치의 시대」이다.

여기서 그의 독특한 한국 정치사의 시대 구분이 보인다. 그는 (1) 上古 : 小分立 정치시대(단군에서 삼한 말까지의 2천 2백년간), (2) 中古 : 大分立 정치시대(삼국 초부터 남북조까지의 1천년간), (3) 近古 : 귀족정치시대(고려), (4) 近世 : 군주독재정치의 시대(조선)로 나눈 것이다.

그가 상고와 중고를 분립정치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부족 자치’와 ‘王 분립’의 정치를 말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나 중국 周代의 봉건제도와 같은 것이 우리 나라에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서양의 봉건제는 이민족의 정복 과정에서 나타났고 중국의 봉건제는 군주제가 先立한 뒤에 성립됐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봉건제는 “혈족 관념으로부터 自治的 정치에 基하야 국가를 건설하면 당초에 成한 것”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봉건제는 자치제에 생명이 있다고 보았고 이 자치제의 발달에서 우리 나라 정치사의 특색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면 상고 시대를 소분립 정치시대라고 부르고 중고 시대를 대분립 정

치시대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 단체의 규모의 대소를 기준한 것으로, 상고 시대에는 부여, 속신, 구려, 삼한 등등의 여러 작은 정치 단체들이 분립한 까닭에 소분립이라 했고,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신라와 발해)는 국가가 셋 또는 둘로 크게 통합되었던 까닭에 대분립이라고 했다.

정치 단체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자산은 近古의 고려가 역사상 처음으로 一朝單體가 된 시대로 이해되고 있다. 즉 무수한 소국 분립으로부터 출발하여 5~6개국→3개국→2개국→1국으로의 과정을 거쳐 통일된 것으로 그는 파악한다.

이러한 정치 단위의 통합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의 입장은 선배들의 그것과 달랐다. 이 점에 대해 한영우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선배 민족주의 사가들이 고구려와 만주사에 중점을 두고 민족 통일 과정을 이해한 것과는 달리, 안화은 신라와 반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판이하다. 이러한 입장은 소위 신라 통일에 대한 해석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주의 사가들은 당병의 힘을 빌어 승리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민족적 반역 행위로 매도하였고, 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만주사를 국사의 주류로 인식하였는데, 안화은 발해와 신라를 남북조 시대로 호칭하면서도 주류는 신라에 두고, 문무왕의 통일을 영웅적 위업으로 찬양하면서, 신라 통일의 원인을 신라의 정치 발달(자치제)에서 찾고 있다. 나아가서 그는 신라 통일을 비난하는 입장을 [...]반박했는데...] 말하자면 삼국 시대에는 아직 민족 관념이 형성되기 이전이므로 오늘날의 민족 관념으로 신라의 통일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p. 149).

4. 이 책의 조선정치사 성격 규정

자산은 이 책에서 자치제 문제에 특별히 유의했는데, 그 까닭은 정치 주권의 소재를 통해서 정치 발달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데 있다. 그리하여 그는 상고에서 중고의 전반기는 주권이 민중에 있었던 공화제로 보고, 중고 후반기 즉 삼국과 남북조 시대를 군주와 귀족과 인민의 혼합체 시대로 보았다. 고려 시대는 주권이 귀족에 있었던 귀족 정치의 시대로, 조선 시대는 군주의 독재정치 시대로 각각 규정했다. 여기서 군주 독재정치 시대는 군주 1인만이 주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권을 매개로 하여 신민의 정치 참여가 크게 확대된 정치, 즉 ‘제몽적 독재정치’ 시대로서, 그 다음 입헌공화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했다. 그의 이러한 인식

에 대해 한영우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안학의 시대구분론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상고와 중고의 전반기, 즉 삼국 이전 시대를 공화제로 본 것이나, 고려 시대를 귀족정치로 규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고려 시대를 한국사상 가장 귀족 정치가 발달한 시대, 다시 말하자면 인민참정권이 가장 제약된 시대로 보는 까닭이다. 삼국이나 신라보다도 고려 정치가 더 후퇴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그가 표방하는 발전적 시대 구분론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안학은 신라의 정치 발달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의를 부여한 나머지 고구려 계승 국가인 고려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 정치사를 고려 시대 정치사에 견주어 그 발전된 모습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안학의 독창적인 기여라고 할 것이며, 조선 시대 정치사 이해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p. 151).

5. 이 책의 이조정치 이해

이 책은 고려를 귀족정치 시대로, 조선을 군주 독재정치 시대로 대비시켰으며,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를 단순한 왕실의 자리바꿈으로 보지 않고, 사회혁명적인 발전과정으로 파악했다. 군주 독재정치를 귀족정치보다 발전된 형태로 보는 이유를, 군권의 발달이 군주 한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권을 매개로 하여 신권과 서민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데서 찾았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이조의 정치를 군주 1인의 橫姿壓制로 이해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이조 시대에는 현대 구미 각국의 국회같은 것은 없었다고 해도, 정신상·습관상·행정상으로는 신민의 무한세력이 잠재하여 군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했다.

그는 조선의 신민이 군권을 제약하면서 정치적 자율성을 행사한 사례들을 궁정회의와 공론에 입각한 여론정치의 발달, 국민대표의 정치발안(儒疏等), 그리고 정당정치의 발달 등등에서 찾았다. 한영우 교수도 강조했듯이, 그가 “특히 조선 시대의 특징적 정치 형태로 나타난 당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 정치의 발달’로 긍정한 것은 매우 주목할 발언이라고 하겠다.”(p. 154). 자산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 와서 비로소 당쟁이 발생한 것은 일반 인민의 정치상 토의가 얼마큼 자유로워진 참정권의 확대에서 비

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李建昌(『黨議通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당쟁 폐단론을 반박했다.

당파 정치가 정치 발달을 가져 왔다는 증거로 자산은 세 가지 현상을 들었다. 첫째 당파 정치는 군권이 줄어들고 정책의 권리가 진작하여 정치상 자유가 생겼다는 것, 둘째 당파 정치는 인재 등용을 활성화시키고 常人的 정계 진출도 촉진시켰다는 것, 세째 당파 정치는 각기 서로 다른 여론과 당의가 일어나는 가운데 절충적 정치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 등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당파인 4색에 대해서도 이것을 단순한 私利 추구의 도당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주의를 가진 정당으로 보면서 그 성격에 따른 분류도 시도했다. 즉 노론과 북인은 변통적 자유방침과 수단이 있는 자유당으로, 소론과 남인은 절의적·고집적 수단과 방침을 가진 보수당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결국 조선 후기의 정치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정치 발전이 이루어졌고, 세도 정치는 당파 정치가 끊어진 상황에서 빛어진 것으로 오히려 정치가 더욱 추악하게 쇠퇴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독재정치가 5백년 동안 지속된 이유는 정당의 쟁의가 군권을 제한함에서 가능했다는 것이다(정당에 관한 그의 설명은 주로 제83~85절에 있다).

조선 시대의 의교에 대해서도 자산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조선 시대 의교의 성격을 사대주의와 굴종적 노예주의로 이해하지 않고 호혜주의와 법률적 관념에 바탕을 둔 주권의식에서 찾았다(p. 284). ‘以小事大’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았다(p. 173).

IV. 맷 음 말

안자산은 확실히 우리 나라 근대 정치학의 태두라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이 책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 정치학 저서이다. 이러한 뜻에서 안자산과 이 책에 대해서는 정치학자에 의한 보다 더 면밀한 정치학적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안자산에 앞서 근대 정치학을 공부한 이는 安國善(1878~1926)이다.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향리에서 죽었다. 일찌기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의 동경전문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연설法方』(1907), 『의교

通義』, 『정치원론』과 같은 책을 썼고, 탁지부의 서기관과 과장 및 군수직을 거쳤다. 1908년에 『금수회의록』이란 우화소설을 발행했다(汎友소설문고 ⑤7, 安國善, 『금수회의록』(의), 1983).